

ChungNam Report+



매력 넘치는 내포신도시 흥예공원, 어떻게 가꿔야 하나?

박 철 희 · 전 수 광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수석연구위원 · 연구원
jacob10@cni.re.kr · waterlight@cni.re.kr

주요내용

명소화의 개념과 조건

- 공원 명소화란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장소의 매력성, 이용편의성, 공동체성(활동프로그램), 상징성(랜드마크), 접근성, 대중성의 확보가 중요함

내포신도시 흥예공원 명소화의 과제

- 현재의 흥예공원은 ①장소적 매력성(공동체성, 상징성) 측면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랜드마크적인 상징성이 부족, ②이용편의성 측면에서 실제 방문객들에게 꼭 필요한 편의시설(매점, 카페테리아, 휴지통 등)이 부족 ③접근성 측면에서 대로로 인한 보행접근 단절, 사회적 약자의 배려 부족, 배후 녹지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임

공원 명소화 사례와 시사점

- 장소적 매력도 제공을 위해 상징 랜드마크 조성(사카고 밀레니엄 파크, 빌바오 예술공원),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서울숲, 뉴욕센트럴 파크)을 개발 운영 중에 있음
- 이용성,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로폭 축소와 보행접근로 조성(인도교 등:빌바오 예술공원, 일산호수공원), 다양한 편의시설(가르텐쇼파크, 하이드파크)을 도입함

정책제언

- 장소적 매력도 제고를 위해 공공디자인과 예술 융합형 조형적 디자인 도입 (조각형 공원 조성)과 충남을 대표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제안함
-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편의시설(카페, 어린이놀이터, 화장실/휴지통 등)을 확충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접근성 제고를 위해 내포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충남도청과 연계된 보행자 중심의 보도 조성(옹골산, 수암산)과 연계성 확보, 사회적 약자를 위한 Barrier Free(물리적·제도적 제약을 없앴) 설계 도입이 요구됨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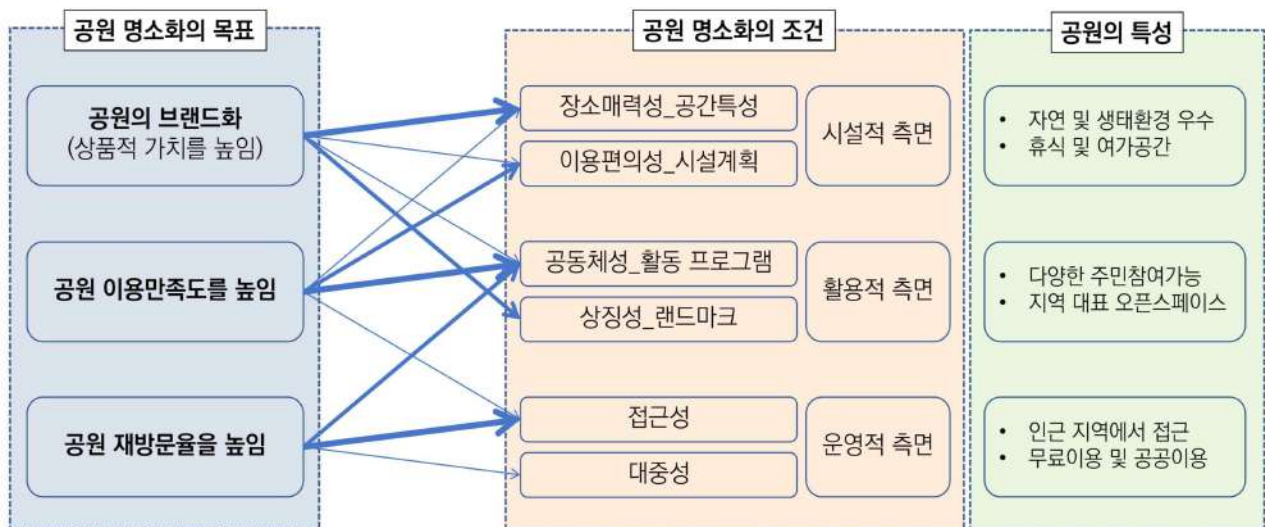
명소화의 개념과 조건

- 공원 명소화란 시민 누구나 ①쉽게 접근하여 ②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③매력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과정임
 -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고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됨

- 명소화를 위해서는 시설, 활용, 운영 측면에서 다음의 조건을 확보해야 함
 - 시설적 측면에서 장소 자체의 매력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는 물리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장소의 매력성을 강화해야 함. 또한 이용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편의성의 확보도 중요하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시설의 구비, 프로그램과 공간(시설)의 연계가 확보되어야 함
 - 활용적 측면에서 명소라는 공간자체 보다는 공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상징성(랜드마크) 등을 가져야 함
 - 운영적 측면은 가능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한 대중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용 대상(사회적 약자 포함)과 수단(도보, 대중교통, 자동차 등) 측면에서 접근성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소화를 위해서는 공원이 가진 자연성, 장소성, 고유성을 발굴하여 이용객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되도록 하며, 주변 지역과 차별화된 경관포인트를 설정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구성해야 함
 - 여가 및 휴식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공원 내외 공간과의 연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매우 중요
 - 편의시설과 공간조성에 있어 이용편의성을 넘어 독특하며 차별화된 랜드마크적 디자인 도입과 홍예공원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홍예공원 주변지역에 조성되었거나 예정인 도서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과의 기능적 연계, 도시지역(주거, 공공청사지역) 배후지역(용봉산, 수암산)과의 접근성 확보가 매우 중요

〈공원명소화의 목표 연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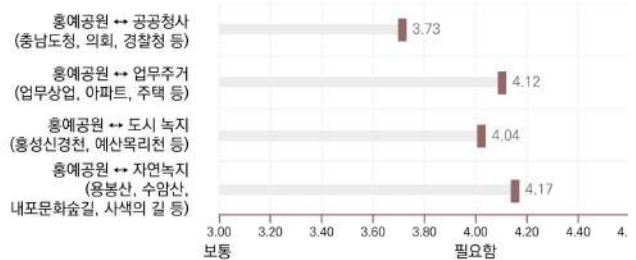
02

내포신도시 흥예공원 명소화의 과제

■ 공원 내외 접근성과 연계성 부족

-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내포신도시에서 흥예공원을 중심으로 ①용봉산과 수암산의 연계, ②업무·주거지역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 현재 흥예공원은 충남대로로 보행접근이 단절되어 있고, 배후 용봉산과 수암산의 경우 주거, 사유지로 인해 단절되어 있음

〈흥예공원과 주변지역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에 대한 필요도〉



■ 공원 내 편의시설의 부족

- 내포시민과 공원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을 위한 (그늘)쉼터, 안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편의시설 (카페, 피크닉장,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응답
- 기초편의시설에서는 그늘쉼터 29건, 화장실 16건, 쓰레기통 9건 등이 나왔고, 어린이놀이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11건, 키즈 카페 3건, (어린이)물놀이시설 8건 등이 제안됨
- 편의시설에서는 카페 12건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이외 피크닉장, 캠핑장, 바비큐장, 글램핑장 등이 제안되었고, 문화예술 시설에서는 야외공연장 6건, 음악분수 4건, 야외전시장, 영화관 등이 제안됨

■ 공원 이용 프로그램 부재

- 공원 내 프로그램에 참여의향은 높으나 참여 프로그램이 없어 단순한 이용에 그치고 있음.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램
- 분야별 참여의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문화예술(4.0)이며, 다음 건강체육(3.84), 놀이위락(3.74), 자연생태(3.71) 순으로 나타남

〈흥예공원 이용프로그램 분야별 의향 및 참여방식 선호도〉

자연생태(3.71)			문화예술(4.0)			건강체육(3.84)			놀이위락(3.74)		
구분	응답자수	비율	구분	응답자수	비율	구분	응답자수	비율	구분	응답자수	비율
합계	499	100.0%	합계	533	100.0%	합계	487	100.0%	합계	439	100.0%
단순관람	85	17.0%	단순관람	114	21.4%	단순관람	39	8.0%	단순관람	55	12.5%
교육	83	16.6%	교육	71	13.3%	교육	65	13.3%	교육	33	7.5%
체험	157	31.6%	체험	127	23.8%	체험	178	36.6%	체험	133	30.3%
이벤트축제	62	12.4%	이벤트축제	151	28.4%	이벤트축제	63	12.9%	이벤트축제	97	22.1%
야외활동	82	16.4%	야외활동	56	10.5%	야외활동	128	26.3%	야외활동	92	21.0%
자원봉사	30	6.0%	자원봉사	13	2.4%	자원봉사	13	2.7%	자원봉사	24	5.5%
기타	0	0.0%	기타	1	0.2%	기타	1	0.2%	기타	5	1.1%

03

공원 명소화의 사례와 시사점

■ 장소적 매력과 상징성 확보를 위한 랜드마크적 디자인 도입 - 예)조각 도입

- 빌바오(Bilbao) 구겐하임 및 예술공원(기억의 산책)은 구겐하임 미술관 네르비온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예술 관광지로 자리매김함
-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의 경우 구름(The Cloud)와 파빌리온의 도입을 통해 장소에 상징성을 주고 시민들이 기억하는 장소로 만들



■ 보행자, 보행약자 등을 중심으로 공원 접근성을 확보

- 빌바오(Bilbao) 구겐하임 및 예술공원은 도시 내 주변(주거, 상업, 업무 등)지역에서 공원으로 접근이 쉽도록 기반을 조성(인도교 조성, 보도 확대, 노면 높이 조성 등)하고, 주변지역과 공원 간 연계보도 조성, 자동차 도로 폭을 축소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하이드파크, 센트럴파크 등도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개선

- 서울숲의 2단계 개장, 일산호수공원 미래전략 수립,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 연계사업과 같은 지속적인 계획 수립에 의하여 지속적인 공원 관리가 이루어짐
- 뉴욕센트럴파크는 지속적인 계획과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의 다양한 활동을 수렴하고 있으며, 런던 하이드파크, 독일 가르텐쇼우 파크도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비롯하여 소규모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보완이 이루어짐



■ 개장 초기부터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 서울숲의 프로그램은 70개, 센트럴파크는 84개로 각종 이벤트 개최 및 촬영 지원부터 교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참여를 유도함
- 영국은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공원의 청결과 위생, 다양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여 공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 주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

- 서울 숲은 한강과 성수동 일대의 도시재생지역과 연계하며, 일산호수공원은 주변의 지하철역, 라페스타, 배후의 주거지역과 밀접한 접근성을 가짐. 세종호수공원은 세종시의 상징적인 문화시설과 연계된 공간을 형성함
-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주변 지역과 연계된 탁월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 독일의 가르텐쇼우 파크는 주변의 녹지축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지님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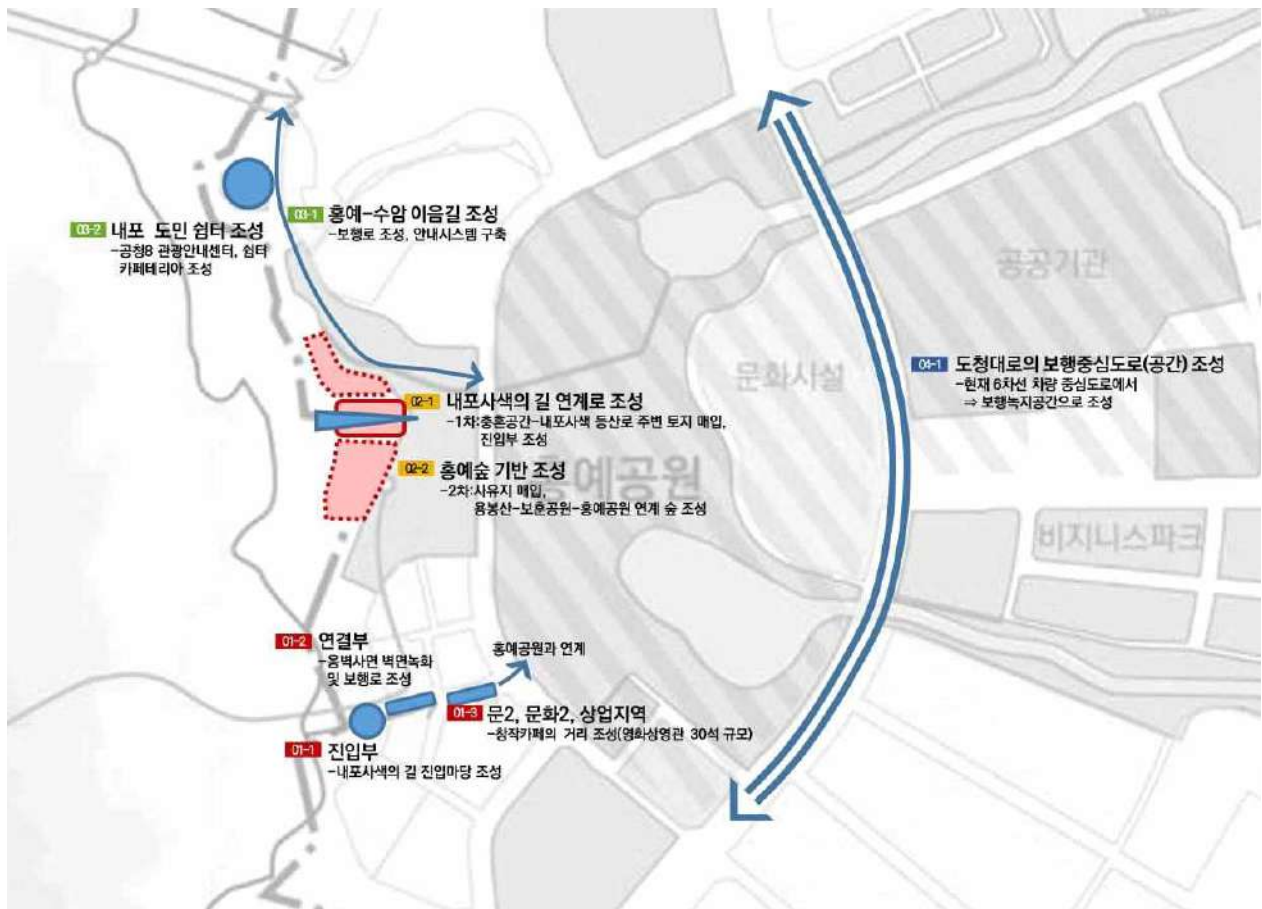
정책 제언

■ 누구나 접근, 사회적 약자를 위한 Barrier Free¹⁾ 설계 도입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이 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원 내에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흥예공원 정비 시 설계에 반영 필요

■ 흥예공원과 주변지역 간의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

- 흥예공원과 주변지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흥예공원과 공공청사지역, 업무·주거지역 사이에 설치된 도청대로 (8차선)의 차선을 축소(또는 제거)하여 보행자 중심 또는 보행전용도로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흥예공원 서쪽에 위치한 용봉산, 수암산과의 연계를 위해 용봉산과 연결로, 보훈공원-용봉산·수암산을 연결하는 보행도로 설치를 제안함



■ 수요자 중심의 흥예공원 공간 조성

- 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①기초편의시설로서 보도(산책로)의 쉼터화(포켓쉼터), 안내시설, 화장실 등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②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③이용자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카페시설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1)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4일 이후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무 대상

■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공원이용 촉진과 재방문을 향상, 공동체성 증진을 위해 분야별 브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함
-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문화 향유 스마트 AR 산책로 체험, 충남도민 문화주간 (예술제), 세계 청소년 케이팝 축전 in 홍예 등의 프로그램과 놀이 위락 분야에서는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서로 공유하는 충남 도민의 술 - 세계 시민의 술 축제, 자연생태 분야에 내포신도시 이념인 탄소중립도시와 연계된 홍예공원에서 배우는 탄소발자국 줄이기 등을 제안함

■ 명소화를 위한 랜드마크 조성과 장소매력성 증진 - 공공디자인+예술결합형 조각 도입

- 상징적인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장소적 매력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홍예공원 내의 주요 지점에 조각, 조형물 등을 도입하여 특성화할 것을 제안함



■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 조직 및 관리운영

- 홍예공원의 명소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공원의 직접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충남혁신도시조합 내 공원녹지관리팀의 기능강화와 함께 가칭 '내포 홍예공원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충남도와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함

— 참고문헌 —

박철희. 전수광, 2023,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소화 전략, 충남연구원 전략과제.